

적대적 공조*

- 남·북한 양쪽에서 금서가 된
『북조선왕조성립비사: 김일성정전』(1982)의 드라마-

정종현**

〈차 례〉

1. 냉전의 경계를 넘나든 텍스트
2. 역명의 숲에 숨은 저자(들)
3. 이시하라 호키와 자유사의 역할
4. 『김일성정전』 각 판본의 비교
5.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이 연구는 남북한 양쪽에서 금지된 어떤 책의 출판 과정과 그 극적인 운명을 추적한 것이다. 1982년 4월 일본의 자유사(自由社)에서 임은(林隱)의 『北朝鮮王朝成立秘史: 金日成正傳』이 출판되었다. 저자 임은은 다양한 증언과 자료를 활용하며 김일성의 과장된 항일 경력과 한국전쟁의 이면, 김일성의 숙청 정치, 주체사상의 반마르크스주의적 성격 등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일성 일인숭배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하면서도 저자는 김일성 가짜설을 논박하며 그의 항일 유격대 활동 자체는 사실로 인정했다. 자유사에서 일본어와 영어로 출간된 이 저술은 곧바로 도쿄주재특파원들의 발췌 번역으로 『경향신문』과 『조선일보』에 소개되었다. 하지만 소개된 부분은 김일성에 대한 격렬한 비판 부분에 국한되었다. 저널리즘에 소개되는 동시에 이 책은 1982년 4월 한국양서사에서 한글로 원역·출판되었지만 곧바로 금서가 되었다. 신문의 발췌 번역에서는 걸러진 마르크스주의자로서의 저자의 관점과 김일성의 항일 경력을 인정하는 서술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이후 내내 금서로 묶여 있다가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3031971)

**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1989년 옥촌문화사에서 다시 출판되었다.

이 책의 저자 임은은 소련에 망명한 북한유학생 허웅배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의병장 허위의 손자로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고, 한국전쟁 때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소련 영화대학에 유학하다 김일성 숭배를 비판하며 동료 유학생들과 소련에 망명했다. 여러 증언에 따르면, 이 저작의 필자인 임은은 허웅배 1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에 망명한 연안파 정치인인 주소련대사 이상조, 북한정권 초기 문화선전성 부상을 역임한 고려인 정상진 등의 구술과 망명유학생 허진, 이진 등 재소련망명자들을 아우르는 집단의 필명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자유사판과 한국에서의 각 판본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한국양서사에서서는 검열을 의식한 탓인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관점이 두드러진 증상이 생략되어 번역되었으나 옥촌문화사는 이 부분까지 완역되었다. 또한, 한국양서사에서서는 일본어 판본에 있던 사진을 완전 삭제했는데 옥촌문화사 판본에는 이 사진들이 모두 실려 있다. 이것은 검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임은의 원고는 스페인을 거쳐 자유사 사장 이시하라 호키(石原萌記)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시하라 호키는 세계문화자유회의의 일본지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일본지부의 기관지인 『자유』지를 창간한 인물이다. 『사상계』 지식인들과도 교류가 있었으며, 1970년대에는 일본과 소련의 교류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했다. 이 원고가 일본에 전달되어 출판되고 다시 한국에서 번역 출판되는 과정에는 반북 망명자 그룹-문화적 냉전기구의 국제적 네트워크가 연루되어 있었던 셈이다.

결론적으로 냉전의 경계를 넘나들며 출판된 이 책이 겪은 드라마는 남북한 정부가 상호 적대적이었지만 적어도 한반도의 역사적 사회주의에 대한 기억과 그것을 증언하는 목소리를 금지시키는 데 있어서는 공조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주제어] 『北朝鮮王朝成立秘史:金日成正傳』, 임은(허웅배, 허진), 自由社, 이시하라 호키(石原萌記), 문화적 냉전, 검열, 금서와 해금

1. 냉전의 경계를 넘나든 텍스트

1982년 4월 1일, 일본 도쿄의 자유사(自由社)에서 김일성 개인숭배를 비판하는 책 한 권이 출판되었다. 일본어로 간행된 책의 제목은 『北朝鮮王朝成立秘史:金日成正傳』, 저자는 임은(林隱)이었다. 이 책이 출판되기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김일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드물었다. 그 드문 논의도 거의 대부분 김일성 가짜설이거나 그 변주인 복수(複數)의 김일성 설이었다.¹⁾

1) 대표적으로는 이명영, 『金日成正烈傳:그傳說과 神話의 真相糾明을 위한 研究』, 신문화사, 1974. 이명영은 구술 청취와 관련자료에 근거하여 1930년대에 만주에 3인의 김일성이 있었다고 파악했다. 항일연군 제2군 제6사 사장이었던 김일성과 제1로군 제2방면군 군장이 된 김일성은 서로 다른 인

이 책은 김일성에 대해 전면적인 비판을 하고 있기에 기존 논의들과 흡사해 보였지만, 전혀 새로운 인식과 자료를 선보였다.

이 책은 청년혁명가이자 만주의 항일유격대 지도자인 김일성의 경력을 사실로 인정한다. 대신에 김일성의 치적으로 신화화된 보천보 전투와 조국광복회의 과장된 실상, 김일성 전설의 공백기인 소련 영내의 동북항일연군 교도려(이른바 제88특별여단) 시절에 대한 증언, 해방 전 김일성을 능가했던 동북항일연군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활약상, 한국전쟁이 남침이었다는 사실과 김일성의 냉혹한 정적 숙청 과정, 주체사상의 반공산주의적 성격 등을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에서 이탈한 북한 체제와 김일성 개인숭배를 비판하고 있다.²⁾

지유사판 초판본에는 책의 정식 간행일이 4월 1일로 박혀 있지만, 시중에 배본된 것은 조금 앞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과 『조선일보』에서는 도쿄특파원발로 이 책이 3월 23일에 간행되었다고 전하면서 하루 뒤인 1982년 3월 24일부터 곧바로 일부 내용을 발췌 번역하여 연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두 신문 모두 연재를 시작하는 머리말에서 이 책의 저자가 ‘채소련북한 망명객’이며, 그 원고가 스페인을 거쳐 일본에 전달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정작 지유사 판본에는 이러한 설명이 없는데, 특파원들이 이 책을 출판한 지유사 관계자에게서 직접 전해들은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물이며, 두 사람은 각기 전사하거나 사망해버렸고 제3의 평양의 김일성은 당시엔 무명의 일개 빨치산대원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중적인 차원에서 김일성 가짜설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데, 그 중요한 심정적 근거는 1945년 10월 14일 평양시민대회에서 처음 등장한 김일성의 모습이였다. 나중에 ‘김일성장군환영대회’라고 불려진 이 집회에서 백발의 노장군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양복 차림의 청년 김일성이 등장하여 가짜라고 의심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오영진, 『蘇軍政下の北韓: 하나의 證言』, 중앙문화사, 1952를 참조할 것.

- 2) 김일성의 경력에 대한 논의는 방대하다. 우선, 북한에서 간행된 김일성 전기류들과 1959년 첫 권이 출판되고 1970년대까지 20권이 발행된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김일성 자신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이 있다. 여러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역사 서술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비교적 공신력과 권위를 인정받는 연구서들로는 와다 하루키의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1992)과 임은의 저서, 서대환의 『김일성』(청계연구소, 1989), 김찬정의 『비극의 항일빨치산』(동아일보사, 1992) 등이 있다. 최근에는 김일성과 항일연군에서 함께 했던 중국 내 생존 연고자들의 증언을 포함한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쓰여진 유순호의 『김일성』 상·중·하(서울셀렉션, 2020)가 출판되었다. 김일성 전기와 서사의 역사적 검토는 또 다른 차원의 논의 주제이며, 이 글에서는 임은의 저술이 냉전의 문화를 맺고 있는 맥락에 집중했음을 밝혀둔다.

신문 연재와 거의 동시에 이 책은 단행본으로도 번역 출판되었다. 한국양서사는 4월 10일에 ‘재소 북한공산주의자가 쓴 『김일성정전』이라는 홍보 문구를 하단에 붙이고 『(완역판)북한김일성왕조비사』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출판했다. 출판 간기만으로 비교해 보면 일본 자유사판이 나오고 열흘만에 번역된 셈이다. 한국양서사판은 검열을 통과하여 출간되었지만 출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서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83년 11월 30일 현재, ‘문제성 도서목록’ 213종을 적시한 문화공보부의 대외비 문서가 남아 있다.³⁾ 이 문서 목록 중 71번째에 한국양서사판 『북한 김일성왕조비사』가 등재되어 있다. 이 도서목록의 비고란에는 ‘긴급조치’, ‘계엄사’, ‘안기부’ 등의 표시가 되어 있어서 대략 어느 시기에 어떤 기관에 의해서 금서로 지정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무런 표시가 없이 이름을 올린 『북한김일성왕조비사』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 지정된 금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간지에서 연재되어 수많은 독자들이 이미 읽었던 내용이 포함된 책이 왜 금서가 되었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이 책은 김일성 개인숭배와 주체사상의 사이비성에 대한 격렬한 증오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활동을 사실로 제시하고 중국공산당 산하 만주의 항일연군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의 영웅적인 활동을 상세하고도 우호적으로 그렸다. 또한 김일성과 북한 체제를 비판하지만 레닌과 진정한 공산주의로의 복귀를 주장했다. 뒤에서 상세히 살펴겠지만, 당시 신문에 연재된 것은 이러한 필자의 주장을 비켜가며 김일성에 대한 비판 부분만을 발췌 번역함으로써 검열을 피할 수 있었는데, 완역되어 단행본으로 출판된 이후에 뒤늦게 불온한 내용을 발견한 당국에 의해 금서로 지정된 것이다.

금서로 지정되었지만 이 책은 1985년 무렵까지도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었다. 1985년 당국에 의한 압수목록에도 이 책이 포함되어 있었다.⁴⁾ 이 책이

3) 『문화공보부 대외비 문서 문제성도서목록(국내) '83. 11. 30 현재』는 민주화운동아카이브에서 검색 가능하다. 이 목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정종현, 『해금 전후 금서의 사회사』, 『구보학보』 20집, 2018. 이 논문을 쓸 당시에는 저자 이름을 일본인으로 추정했지만, 이것은 잘못된 사실 판단이기에 바로잡고자 한다.

금서에서 풀려난 것은 1987년 10월 19일 문공부의 ‘출판활성화조치’로 이루어진 431종의 출판물에 대한 선별적 해금에 의해서였다.⁵⁾ 당시 신문들은 이들 해금 도서 중에서도 『북한김일성왕조비사』 등 북한에 대한 비판서가 포함된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⁶⁾ 이 책이 족쇄에서 풀리고 2년여 뒤인 1989년, 이번에는 출판사를 옥촌문화사로 바꾸어 새로운 판본이 출판되었다. 국내에서는 민주화 이후 북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평양의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임수경 등이 참여하며 통일운동의 열기가 고조되던 시기였다. 국제적으로는 페레스트로이카와 동구권의 격변으로 세계 질서가 요동치는 시절이었다. 이처럼 이 책은 소련에 망명한 북한 출신의 저자가 쓴 원고가 유럽을 경유하여 남북한과 긴밀하게 연결된 일본 도쿄에서 간행된 뒤 곧바로 한국에서 번역되지만 금서로 묶였다 다시 재출간 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책의 이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유샤는 1982년에 이 책의 영어 판본을 함께 출간했다. 냉전의 절정기였던 당시 소련에 망명한 북한 출신 인사의 김일성 비판서는 미국을 비롯한 이른바 ‘자유 진영’의 지식인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텍스트였다. 자유샤는 이른바 ‘자유 진영’의 독자를 겨냥해서 영어판을 출판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판 판권란에서는 이 책이 일본어 판본을 원본으로 영역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⁷⁾

그렇다면, 최초의 원고는 어떤 언어로 작성된 것일까? 최초의 원고 형태는 한글 원고였으며, 그것이 일어로 번역되고 다시 일어 판본을 한국어 판본과 영어 판본으로 번역했을 가능성이 크다.⁸⁾ 한국에서의 번역본도 『경향신문』과 『조선일보』의 연재본과 한국양서관의 한글 문장이 각각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본어 판본을 서로 다른 번역자들이 옮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압수 수색영장 발부된 서적과 유인물」, 『동아일보』 1985년 5월 9일자.

5) 「선별해금에 출판계 불만 판금 서적 4백 31종 해금 내용과 반응」, 『동아일보』 1987년 10월 19일자.

6) 「서류 따른 선별해금 사회과학 분야에 숨통」, 『매일경제』 1987년 10월 21일자.

7) “First published in Japanese in 1982 with the title, A Secret History of the Founding of a North Korean Dynasty.”

8) 하지만 처음부터 일본어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아예 막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뒤에서 살펴볼겠지만,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사람들은 식민지 시기 만주에서 성장했으며 일본어 구사가 가능했던 세대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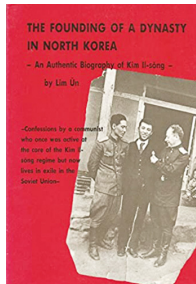
이상에서 논의한 이 책의 여러 판본들의 상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김일성정전』의 판본들

연번	제목	출간연월일(발행일)	출판사(매체)
1	전 북괴 로동당비서가 쓴 『김일성정전』(총7회)	1982. 3. 24.-1982. 4. 2.	경향신문
2	재소북한공산주의자가 쓴 북괴내막 『김일성정전』(총16회)	1982. 3. 24.-1982. 4. 13.	조선일보
3	北朝鮮王朝成立秘史-金日成正傳	1982. 4. 1.	자유사(自由社)
4	THE FOUNDING OF A DYNASTY IN NORTH KOREA -An Authentic Biography of Kim Il-song	1982.(월일미상)	자유사(自由社)
5	北韓金日成王朝秘史-金日成正傳	1982. 4. 10.	한국양서사
6	북조선 창실주역이 쓴 金日成正傳	1989. 11. 15.	옥촌문화사
7	미출간 러시아어 판본	2008 ⁹⁾	



[가] 자유사
일어판본(1982)



[나] 자유사
영어판본(1982)



[다] 한국양서사
판본(1982)



[라] 옥촌문화사
판본(1989)

[그림1] 출판된 『김일성정전』의 표지들

- 9) 출간되지 않은 이 책의 또 다른 판본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저자인 허웅배(허진)를 존경했던 러시아 한국학 전공자들이 1990년대부터 『북조선왕조성립비사:김일성정전』의 러시아어 번역을 시작했고, 2008년에 그 러시아어 초역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안드레이 란코브(국민대 교수)가 그 책의 서문을 썼지만, 그 사이 책의 번역을 추진했던 허웅배의 부인 최선옥이 죽고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러시아어 출판은 무산되었다고 한다. 다만, 책에 사용하려던 란코브의 러시아어 서문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박노자 교수의 도움으로 정리한 것이다.

<https://koryo-saram.ru/o-pervoj-v-mirovoj-literature-popytke-politicheskoy-biografii-kim-ir-sena/>

이후부터 일본어, 영어, 한국어로 출판된 각기 다른 이 판본들을 총칭하여 제목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김일성정전』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김일성정전』의 각 판본을 비교하며 해명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의 저자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저자명인 ‘林隱’은 필명이다. 이 책에는 각종 문헌 자료와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건국 초기 중심인물들의 친분을 담은 회귀사진, 항일연군 시절 만주에서 떠돌던 다양한 설화와 북한 정권 내부의 소식을 전하는 구술 자료 등이 활용되고 있다. 항일 유격대 시절과 북한 건국기 및 한국전쟁의 시기 그리고 1950년대 중후반 무렵까지 북한의 주요 정치 세력 사이의 역학 관계와 이면의 에피소드 등등이 담겨 있다. 이것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경험한 이로부터 듣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내용들이다. 필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면 이 책을 둘러싼 맥락이 드러날 것이다.

둘째, 일본과 한국의 출판 주체들의 각기 다른 의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냉전의 세계상은 생각보다 복잡했으며, 각 주체의 위치에 따라 그것에 개입하는 의도도 달랐다. 이 책이 자유사에서 간행되었다는 사실은 각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자유사의 사장은 세계문화자유회의의 일본지부 사무국장을 역임한 이시하라 호키(石原萌記)였다. 이 출판사는 문화자유회의의 일본 기관지인 『自由』지도 간행하고 있었다. 한국의 저널리즘과 한국양서사, 옥촌문화사 등 이 책에 주목한 출판 주체들도 이 책을 소개하는 의도가 각기 달랐다. 이 책이 출판된 시기와 각각의 출판 주체들이 이 책을 번역한 맥락의 차이를 검토할 것이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 되었던 김일성에 관한 논의를 담은 이 책을 독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의 문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책이 처음 번역되었던 1982년과 출판사를 바꾸어 재번역된 1989년 사이에 김일성과 주체사상에 대한 인식의 급격한 전환이 있었다. 이른바 ‘강철서신’에서 비롯한 NL노선이 학생운동의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급속한 경도가 일어났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이 책이 변혁운동권과 일반 독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었는가를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료의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완전한 해명은 당장은 어렵지만 고민해야 할 문제항으로 제시해 두고자 한다.

이제부터 이 문제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자.

2. 익명의 숲에 숨은 저자(들)¹⁰⁾

1982년의 일본어판과 한국양서판에서 저자는 “신비로운 김일성의 공과 죄를 밝힌 글이기 때문에 그 저자인 나 자신도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 있을 것”¹¹⁾이라며 ‘수풀에 숨는다’라는 뜻의 ‘임은(林隱)’이 필명임을 밝히고 있다. 이어 판권란 마지막의 ‘저자 자기소개’에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출생: 나는 동양의 반봉건적 식민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직업: 조선혁명가. 경력: 조선의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 조선의 공산주의 운동에 투신. 현주소: 지금 시대에 과연 몇 사람이나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거주하겠습니까. 기타: 노코멘트.”

이후 주변의 증언에 의해 드러난 저자 임은의 본명은 허웅배(1928~1997)였다. 그는 대한제국 시절의 의병장 왕산(旺山) 허위(許薦, 1855~1908)의 손자였다. 허위는 고종 퇴위 이후에 쫓겨한 13도창의군에서 진동창의대장으로 활약하다가 일본군에 잡혀 경성감옥(서대문형무소)에서 최초로 처형당한 의병장이다. 허웅배가 필명으로 삼은 ‘임은’은 할아버지 허위가 살았던 고향 마을인 ‘선산군 구미면 임은리’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위의 순국 이후 그 집안의 후손들은 만주로 이주해 항일 투쟁에 가담했다. 허웅배는 북만주 주하(珠河)에서 허위의 셋째 아들인 허준의 3남 중 둘째로 태어났다. 하얼빈의 대도관 중학교를 졸업했고, 잠시 소학교 교사를 지내다 해방 후 북한으로 갔다. 1946년 평양시 민주청년동맹 창설에 참여하고

10) 저자 ‘임은’(허웅배)에 관해서는 정종현, 『13. 혈연을 넘어선 이상의 형제들: 모스크바 8진 형제』(『특별한 형제들』, 휴머니스트, 2021, 263~283쪽)에서 서술한 내용에 더해, 새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11) 林隱, 『北朝鮮王朝成立秘史:金日成正傳』, 自由社, 1982, 11쪽.

평양시위원회 선전부책임자로 학생 사업지도와 문화 선전 등에 종사했다. 내무성 문화국에서 문화 사업 책임자로 일하다가 한국전쟁 때에는 인민군 소좌로 정치문화 사업을 담당했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6월 29일 허웅배는 서울에 진주해 전선지구위문단격인 예술단을 조직하여 명동성당에 본부를 설치하고 연극·무용·가요계 인사들 3백여명을 모아 순회공연을 다녔다.¹²⁾ 그는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2년 9월 파견유학생에 선발되어 소련국립영화학교(지금의 VGIK, 이하 영화학교)에서 유학했다.¹³⁾

소련 유학을 하면서 허웅배는 북한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1956년 2월에 개최된 소련공산당 제20차 당 대회에서 제1서기 니키타 흐루쇼프(Nikita Khrushchev)가 연설한 〈개인숭배와 그 결과에 대하여〉는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른바 ‘스탈린 격하 연설’이라고 알려진 이 비공개 연설에서 흐루쇼프는 스탈린 치하에서 희생된 막대한 규모의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 통계를 제시하며 스탈린 개인숭배를 격렬히 비판했다. 허웅배는 연출과의 2년 선배인 폴란드 출신 예르지 호프만(Jerzy Hoffman)으로부터 흐루쇼프의 연설을 전해 들었다. 흐루쇼프 연설은 민주적 사회주의 체제를 고민하던 허웅배에게 북한의 개인숭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했다.

흐루쇼프 연설은 사회주의 국가들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북한의 경우에도 최용건과 이효순 등이 조선로동당 대표로 소련공산당 제20회 대회를 참관하고 귀국했다. 1956년 3월 20일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용건은 세 시간에 걸쳐 이 대회 참관기를 길게 보고했다. 그러나 최용건은 조선로동당은 소련의 당과 달리 “창립 이래 일관해서 당 령도의 최고

12) 이후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되면서 이들 중 다수가 북한으로 남월북되었다고 한다. 1989년 서울을 방문한 허웅배는 언론과 인터뷰하며 자신이 조직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남월북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토로했다. 『‘민 이역서도 궁지지켰다’ 소·중국동포 특별인터뷰』, 『조선일보』 1989년 9월 28일자. 한국전쟁 때 인민계관으로 사경을 헤매던 팔봉 김기진을 허웅배가 구해주었다는 증언도 남아 있다.

13) 이상의 허웅배의 이력은 이지수, 『1950년대 재소 유학생의 소련 망명 사건과 북한의 폐쇄체제 강화:허웅배의 미출간 회고록과 러시아 문서보관소의 서한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8집 2호, 2020, 55쪽.

원칙으로서 집체적 령도의 원칙을 준수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일성이 조선로동당에서 개인숭배란 박헌영 숭배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¹⁴⁾ 김일성과 최용건 등의 수뇌부는 레닌식 지도에서 정식화된 집단성 원칙을 위배한 개인 숭배로 스탈린의 과오들을 단죄하고 있던 소련의 움직임에 받아들이면서도 북한에는 박헌영에 대한 개인숭배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하지만 견해를 달리하는 세력이 있었다. 1956년 8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윤공흠, 김강, 서희 등 연안파가 김일성 개인숭배를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들은 곧 제압되어 중국·소련 등으로 망명하거나 반당 종파주의자로 몰려 숙청되었다.

1957년 10월에는 주소련대사로 있던 이상조가 연안파로 지목되어 송환에 직면하자 소련에 망명했다. 만주의 항일 투사 출신인 이상조는 허웅배의 친형인 허광배와 함께 활동한 사이이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허웅배는 1957년 11월 27일 모스크바광산대학 강당에서 열린 ‘제8차 재소 조선 유학생 동향회’¹⁵⁾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토론에 나섰다. 모스크바광산대학 강당에는 이신팔 주소련대사와 평양에서 온 당 중앙조직부장 한상두 및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도만 등을 비롯하여 소련 각지의 유학생 400여 명이 운집해 있었다. 회의에서 한상두와 김도만은 1년 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을 비판한 세력인 김두봉, 최창익, 윤공흠, 이상조, 김강 등 연안파를 반당 종파주의자라 비난했다.

유학생 대표자들도 단상에 나와 당과 수령을 찬양하고 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렇게 회의는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때 허웅배가 토론 발언을 신청하고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우리 당에는 개인숭배가 없고, 있

14) 이상은 와다 하루끼, 『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 남기정 옮김, 창비, 2014(6쇄), 123~124쪽 참조.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 참여했던 내무성 제1부상 강상호는 당시를 다음처럼 회고하고 있다. “김일성 수상이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그는 ‘우리 당에는 개인숭배가 없었다고 확인하고, ‘다만 박헌영에게는 일부 당원의 개인숭배가 있었다고 부인했습니다.”(김국후,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한울아카데미, 2013, 200쪽)

15) ‘제8차조선유학생동향회’의 개최시기와 장소, 그리고 400여 명의 청중 등에 대한 정보는 함께 망명한 김종훈의 미공개(미완성) 수기(2008)에 기록된 것을 참고하였다(조규익·김병학, 『카자흐스탄 고려인 극작가 한진의 삶과 문학』, 글누림, 2015, 159~160쪽).

었다면 ‘남로당 추종자들에 의한 박헌영에 대한 개인숭배만 있었다’는 당의 설명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개인숭배는 국가의 제2인자에게 차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1인자에게만 차려지는 것이다.”¹⁶⁾

고급당학교 유학생 대표 등이 허웅배의 발언을 제지하였고, 그는 연단에서 끌려 내려왔다고 한다. 이러한 소동을 겪은 며칠 뒤 북한대사관은 허웅배에게 대사관에 출두해서 그가 제기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의하자고 제안했다. 허웅배는 그 진정성을 믿고 대사관에 찾아갔지만 곧바로 붙잡혀 구금되었다. 강제송환과 숙청의 위기에 직면한 그는 대사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한 후 연인과 함께 소련에 망명을 신청했다.¹⁷⁾

소련 당국은 허웅배와 그의 연인인 의과대학 유학생 최선옥에게 ‘무국적’ 망명 허가를 내주었다. 최선옥은 연변 감옥에서 사형당한 독립운동가 최민철(崔敏哲)의 딸로, 혁명 유자녀들만 다닐 수 있던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이었다. 1958년 이른 봄에 허웅배와 최선옥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했다. 이후 허웅배는 타슈켄트의 니자미국립사범대학교 노어과를, 최선옥은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그들의 망명은 허웅배와 함께 생활했던 영화학교 북한 유학생들을 깊은 고민에 빠뜨렸다. 소련국립영화학교에는 최국인(연출과 6기), 리경진(시나리오과 6기), 허웅배(시나리오과 7기), 한대용(시나리오과 7기), 정린구(촬영과 7기), 양원식(촬영과 8기), 김종훈(촬영과 8기), 리진황(촬영과 9기) 등이 유학하고 있었다. 이들 영화학교의 북한 유학생들은 집단 망명을 결정하고 향후 행동을 함께 하기로 결의했다. 그들 대부분은 북한 사회에 돌아가면 출세가 보장된 계층의 청년들이었다.¹⁸⁾ 자신이 망명했을 때 가족이 처할 위기, 망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곤경, 망명에 성공해도 장담할 수

16) 허웅배 회고록『오로라의 고려인』, 미출간물, 여기서는 이지수, 앞의 논문, 60쪽 재인용.

17) 소설가 김연수는 『일곱 해의 마지막』(문학동네, 2020)에서 허웅배와 최선옥의 에피소드를 새로운 이야기로 창출했다. 백석(기행)을 모델로 한 이 소설에서 김연수는 당시 북한 유학생들의 집단 망명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허웅배와 최선옥의 에피소드를 중앙당학교 교장을 아버지로 둔 번역원 ‘강옥심(라리사)’과 북한 유학생의 슬픈 사랑 및 강옥심이 자살하는 이야기로 다시 쓰고 있다.

18) 망명한 유학생들 중 허웅배, 최국인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연안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를테면, 한대용의 아버지인 극작가 한태천은 김일성 수상의 산업 시찰과 현지 지도를 수행한 뒤 그 교시들을 정리하여 『로동신문』과 국내 잡지들에 발표하는 역할을 수행한 김일성의 측근이었다.

없는 불안한 미래 등의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망명을 결행했다. 그들은 이미 1950년대 모스크바에 불어온 ‘자유’의 공기를 흡입 들이켰기에 당대 북한의 현실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¹⁹⁾

개인 숭배에 투항하는 대신 비판의 자유를 선택한 그들은 소련 당국에 망명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때 허웅배는 동료들에게 “우리들은 이제 참사람이 되겠다는 뜻으로 같은 이름 ‘진(眞)’을 쓰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허웅배(허진), 리경진(리진), 한대용(한진) 등은 결의대로 ‘진’이라는 이름을 죽을 때까지 사용했다.²⁰⁾ 1958년 8월 4일 소련 정부는 이들의 망명을 허용하고, ‘무국적 임시 거주증’을 내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음악대학의 정추와 국립연극예술대학의 맹동욱도 망명 대열에 동참했다.²¹⁾ 이렇게 총 10명의 소련유학생이 집단적으로 망명하게 되었다.

소련 당국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하여 정치적 회합을 통해 집단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망명 유학생들을 소련 전역으로 한 명씩 갈라놓았다.²²⁾ 각자의 임지로 떠나면서 그들은 북한대사관에 우편을 발송했다. 우편에는 그들의 여권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장인 최용건 앞으로 보내는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나는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난폭하게

19) 1951년 5월 한국전쟁 진상조사를 위한 국제민주여성연맹 조사위원회에 참여한 네 명의 서방측 여성들은 여행 중 경유한 모스크바를 “자유롭고” “미소가 가득”한 “뚜렷한 행복의 도시”라고 기록했다.(김태우, 『냉전의 마녀들』, 창비, 2021, 100~102쪽) 이즈음이 여전히 스탈린의 통치기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스탈린 사후의 해빙기에 모스크바에서 생활한 북한 유학생들이 호흡했을 자유의 공기가 짐작될 것이다.

20) 조규익·김병학, 앞의 책, 171쪽.

21) 모스크바 국립음악원(차이코프스키 음악원) 유학생이었던 정추는 광산대학의 유학생 동향회 때 허웅배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으며, 존경하는 음악 선배 김순남 등이 속칭당하는 북한의 현실에 분개하여 망명 대열에 동참하였다고 회고했다. 이에 대해서는 주성혜, 「[대담] 카자흐 공화국의 한인 작곡가 정추」, 『낭만음악』 제5권 제3호(통권 19호) 1993. 6을 참조할 것. 맹동욱의 삶과 망명 당시에 대한 회고는 그의 자전적 소설인 『모스크바의 민들레』, 예음, 1992를 참조할 것.

22) 망명한 북한 유학생들이 소련 당국에 의해 배치된 곳은 다음과 같다. 허웅배: 티슈켄트대학, 한대용: 러시아 알타이주 바르나울 텔레비전 방송국, 최규익: 알마아타(지금의 카자흐스탄 알마티) 영화촬영소, 김중훈: 무르만스크 영화촬영소, 양원식: 스탈린그라드, 정관구: 중부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리진황(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영화촬영소), 리경진(모스크바 근교촌), 정추(알마아타 음악원), 맹동욱(알마아타 소년극장).

유린되고 있는 상태로 말미암아 1958년 6월 1일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 권을 포기함을 통보한다. 만일 **조국이 모든 합리성을 회복한다면 소련 유학에서 습득한 나의 지식을 인민의 이익에 보답하기 위하여 즉시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다.**²³⁾

이들은 대학교, 방송국, 극장, 신문사 등의 직장에서 교수, 감독, 극작가, 촬영기사 등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다. 하지만 그들에게 “소련 유학에서 습득한 지식을 조국 인민의 이익에 보답”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들은 편지를 주고 받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때론 질책하며 민주적 공산주의 사회를 향한 이상을 지켜나갔다. 소련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기 전에 리경진은 ‘진’의 형제들이 함께 지켜나갈 생활신조를 다음과 같은 문서로 만들었다.²⁴⁾

- (1) 자기 직장에서 겸손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모범적인 일꾼이 될 것.
- (2) 언제나 자체 교양에 노력할 것.
- (3) 항상 동무들의 사업과 생활과 의식 수준(교양)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돌리며 일체 어느 정도라도 중요한 문제는 전원이 알게 하며 필요하면 토의에 붙일 것.
- (4) 도덕적으로도 공산주의자답게 손색없는 인간으로 될 것.
- (5) 조국 정세에 대한 자기 의견을 일체 외국인들에게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것.
- (6) ‘투쟁’과 관련되는 일체 의견을 제 때에 토의에 붙여 동무들이 사태를 옹계 판단하도록 노력할 것.
- (7) 매 동무들이 서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편지로 자기 생활에 대한 총화를 지어 동무들에게 알릴 것.²⁵⁾

23) 이지수, 앞의 논문, 63쪽.

24) 헤어진 뒤의 생활에 대한 결의는 리경진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글로 남은 것은 각자가 헤어진 뒤, 1958년 12월 21일 정란구가 이 결의 내용을 나머지 동료들에게 편지로 정리해 전달했기 때문이다(조규익·김병학, 앞의 책, 174~175쪽).

25) 조규익·김병학, 앞의 책, 174~175쪽.

이러한 신조를 지키며 그들은 서로 편지를 나누고 격려하며 망명 생활을 이어갔다. 이상으로 허웅배(허진)를 중심으로 한 북한 소련 유학생 망명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았다. 장황한 느낌이 없진 않지만 이렇게 길게 유학생 망명 사건을 서술한 이유는 ‘임은’이라는 필자가 위치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임은이 지유사에서 이 책을 출판한 것은 ‘조국 정세에 대한 자기 의견을 일체 외국인들에게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것’²⁶⁾이라는 10인의 망명유학생들이 결의한 조항을 어긴 것이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서문에서 필자 임은은 “만일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가 없었더라면, 이 글의 출판을 영원히 단념했음지도 모른다. 제6차 당대회에 특별한 기대를 건 것은 아니었으나, 그 당대회는 모든 것을 분명히 하여 놓았다. 김일성의 육체적 생명의 끝이 김일성 공포정치 체계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었다”²⁷⁾고 밝히고 있다. 조선노동당 6차 대회는 1980년 10월 10일에서 14일까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김정일이 정식으로 데뷔하여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대회 직후의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및 비서, 군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출되었다.

김정일에게는 김일성에 버금가는 지위가 부여되었으며, 호칭도 70년대에 불리던 ‘당중앙’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로 바뀌었다.²⁸⁾ 김일성 ‘일세(一世)’에서 김정일 ‘이세(二世)’로의 세습이 공식화 된 셈이다. 이처럼 김정일 후계 구도가 명확해진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는 이들 망명자 그룹을 분노케 한 것으로 보인다.²⁹⁾ 오랜 동안 기다렸지만 그들의 조국은 합리성을

26) 망명한 북한 유학생들이 이러한 조항을 두고 북한 정세에 대한 공개 비판을 피한 것은 북한에 남아 있던 가족들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1989년 한국에 교환교수로 왔던 모스크바 연극대학 출신의 망명객 맹동욱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귀국을 거부하면서 김일성 수상에게 “조선의 우리 가족들을 박해하지 않으면 공개비판행동은 안 하겠다”는 공개서한을 보냈었고, 허진(허웅배)의 형이 투옥 처형된 것 이외엔 ‘김일성이 그 약속을 지킨 셈’이라고 말하고 있다. (맹동욱, 『30년전 반김일성 선택 후회 않는다』, 『조선일보』 1989년 12월 5일자)

27) 임은, 『이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 『북한김일성왕조비사』, 한국양서사, 1982, 13쪽.

28) 와다 하루끼, 『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 남기정 옮김, 창비, 2014(6쇄), 194쪽.

29) 한 탈북자는 김정일의 세습이 생활세계에서 어떤 형태로 가시화했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1982년은 큰 사건이 있었던 해다. 김정일의 40세 생일을 맞아 그의 초상화를 부친 김일성 초상화 옆에 걸 수 있게 되었다. 당에서 보내주는 초상화를 받기까지 몇 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학교들과 달리 우리 학교는 제일 먼저 초상화를 받았다. 그 사실이 정말로 자랑스러웠다.”(채

회복하기는커녕 세습의 왕조 국가로 타락했다.

여러 정황과 증언에 근거해 보자면 책의 저자 임은은 허진(허웅배)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책은 일종의 집단 저작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와다 하루키는 이 저서가 “북조선의 당 내지 정부에서 활약했던 인물 이 현재 망명해 있으면서 김일성을 저주하여 책으로 출판한 것”이며 “필자는 소련에 있는 허진(許眞)이라는 인물로 소문이 나 있었다”고 전한다. 와다 하루키는 1985년의 자신의 논문에서는 필자가 소련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썼지만 이후 새롭게 드러난 정황에 따라 견해를 바꾸었다. 그는 이상조와 허웅배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이 책의 저자를 “이상조와, 북조선에서 활동하다가 소련으로 간 많은 소련국적 조선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허웅배 등이 쓴 것”³⁰⁾이라고 정리했다.

1989년의 옥촌문화사 판에서 저자는 여전히 ‘임은’이라는 필명으로 서문을 쓰면서 자신이 “해방 후, 북조선 창설에 깊이 참여했던 공산주의자”이며 “숙청을 피해 소련에 거주”³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 책을 “직접 체험한 바와 여러 증언에 의해 집필”했으며, “특히 이상조 선생의 증언이 도움된 바 크다”³²⁾고 적고 있다. 이상조(1915~1996)는 주소 북한대사로 8월 종파사건의 숙청의 와중에 본국 소환 명령을 받자 망명했다. 그는 부산 동래군 기장 출신으로, 중국에 건너가 난징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조선독립동맹에 가담해 최창익과 같이 행동하다가, 1941년 중국 공산당의 본거지였던 옌안에 가서 항일군정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하얼빈에서 조선독립동맹 북만특위를 조직하여 활동했다.

이상조는 해방 이후 북한으로 가서 조선인민군의 창건에 참여했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 중장의 계급으로 정찰국장, 부참모장직을 수행했다. 항미원조를 내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한국전 참전 결정을 이끌어내는 북한의 청병특사단의 일원이었으며, 1953년 휴전협상 때에는 대표인 남일과 함

세린 글·박지현 이야기, 『가려진 세계를 넘어』, 장상미 옮김, 슬로비, 2021, 94쪽)

30) 와다 하루키, 『김일성과 민주항일전쟁』, 이종석 옮김, 창작과비평사, 1992, 18~19쪽.

31) 임은, 『북한 창설 주역이 쓴 김일성정전』, 옥촌문화사, 1989, 3쪽.

32) 임은, 위의 책, 4쪽.

게 부대표로 참여했다. 이후 군을 떠나 외교관으로 변신해 1955년 소비에트 연방의 대사로 부임하여 활동하다 망명하였다.³³⁾ 이후 그는 소련에서 일본 사 전공의 학자의 길을 걸었다.

1989년 한국을 방문한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해방 후 소련군 평양지구위 수사령부 부사령 임명장을 가지고 김일성이 푸가초프호로 원산항에 입항했다는 임은의 저술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를 묻는 기자에게 “임은의 『북조선왕조성립비사』는 모두 내 얘기를 듣고 쓴 것이지요”³⁴⁾라고 답하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만주 시절의 항일연군에 대한 각종 구전과 편집한 묘사, 북한 건국과 한국전쟁의 발발 당시 북한군의 선제공격에 대한 증언, 숙청 과정의 상세한 설명 등의 상당 부분이 북한 군부와 정계의 고위직에 있었던 이상조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안파인 이상조와 함께 이른바 소련파 출신의 망명자도 이 책의 저술에 관여했다. 정상진(정율)은 연해주로 이주한 소련국적의 재소한인 출신으로 1945년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웅기·나진·청진·어대진에서 벌어진 소련 해군과 조선주둔 일본군 사이에서 벌어진 이른바 ‘해방전투’에 참여했다. 그는 이후 북한에서 문학예술총동맹 부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노문학부 교수, 문화선전성 제1부상 등을 거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1950년대 중후반 숙청된 뒤 소련으로 돌아왔다.

정상진은 회고록인 『이무르만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북한과 소련의 문학 예술인들 회상기』³⁵⁾를 남겼다. 이 저작에 해제를 쓴 정치학자 반병률에 따르면, 『북조선왕조성립비사』는 망명한 주소련대사 이상조가 주요 자료를 제공했고, “허진(허웅배), 이진(이경진), 한진(한대용), 정상진 등 4인이 함께 쓴 작품”³⁶⁾이었다. 정상진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해제 글이기에 정상진 본

33) 이상의 내용은 문영대, 『예술가의 초상2-변월룡』, 안그라픽스, 2021. 4(2판), 287쪽 및 이상조가 한국 방문 시 신문과 인터뷰에서 밝히 그의 이력을 종합한 것이다.(『8월 종파사건 반김세력 제거 창작극』, 『동아일보』 1989년 9월 18일자)

34) 『8월 종파사건 반김세력 제거 창작극』, 『동아일보』 1989년 9월 18일자.

35) 정상진, 『이무르만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북한과 소련의 문학 예술인들 회상기』, 지식산업사, 2005.

36) 반병률, 『역사의 산 증인이 남긴 값진 선물』, 정상진, 위의 책, 285쪽.

인의 증언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망명 북한 유학생 그룹은 연장자인 이상조 및 정상진과 긴밀한 연결 속에서 소련 생활을 이어갔다. 이런 사정과 증언을 종합해보자면, 이 저술은 허웅배(허진)가 주도적으로 집필한 것이긴 하지만, 그 저술의 중요한 내용들은 이상조가 제공한 자료와 구술에 근거하고 있으며, 소련파로 북한 권력의 중심에서 활동했던 정상진의 경험도 덧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작가로 활동한 이진(이경진)과 한진(한대용)의 참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소련의 북한 망명자 커뮤니티의 ‘집단 저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3. 이시하라 호키와 지유사의 역할

그렇다면 임은의 원고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유사에 전달되어 출판될 수 있었을까? 도쿄의 한국 신문사 특파원들은 이 원고가 소련에서 스페인을 거쳐 일본으로 전달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원고 이동의 구체적인 경로에 관한 증언이나 기록을 찾을 수는 없었다. 한 두 가지 원고 이동의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먼저, 소련과 중국,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북한 망명자 그룹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 원고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전쟁 이전까지 남로당 지하당 입시총책을 지냈고 1950년대 중반에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과 홍콩을 거쳐 일본으로 망명한 박갑동의 회고는 한 참고가 된다. 그에 따르면, 1992년 1월 조선민주통일구국전선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발족했다. 박갑동과 이상조가 1989년에 만나 의견을 나누었고, 이후 강동정치학원장 박병율과 『김일성정전』의 중심 저자인 허웅배를 도쿄로 불러 협의한 후 1992년 1월 이상조, 박갑동, 서희가 의장단을 맡고 소련, 중국, 일본, 미주 지부를 둔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한다. 만약에 이들 북한 정권 출신의 망명자 그룹이 이전부터 국경을 넘는 네트워크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면, 그를 통해서 원고가 일본 지유사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박갑동의 회고에서는 탈북한 뒤 이상조를 처음 다시 만난 것이 1989년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1982년의 시점에 반북 네트워크를 통해 원고가 이동했을 개연성은 아주 낮다고 할 수 있다.³⁷⁾ 그렇지만 박갑동이 아니더라도 중국과 소련에 거주하던 반북 인사들과 일본의 네트워크 사이에서 이 원고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 신문사 특파원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남아 있는 보다 높은 가능성은 출판사 '지유사'와 그 사장 이시하라 호키(1924~2017)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루트를 통한 이동이다. 임은 원고와 사진 원판의 최종적인 도착지는 지유사 사장 이시하라 호키였다. 이시하라 호키는 지유사 사장과 일본 외국문화협회 부회장, 일본 출판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시하라는 1944년 와세다대학 재학 중 군대에 들어가 육군에서 복무했으며 1945년 중국 한커우에서 종전을 맞이했다. 이후 도요대학 역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전공하던 중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1951년에 졸업했다. 사회에 진출한 뒤 그는 사회당 우파의 이데올로기로 활동했으며 1956년에는 세계문화자유회의의 일본 지부인 일본문화포럼 설립에 참여하며 사무국장 겸 전무이사로 활동했다. 1959년에는 지유사를 설립하고 세계문화자유회의의 일본지부의 기관지인 잡지 『자유』를 창간했다.

CIA는 냉전이 시작되면서 공산 진영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대응하여 자유주의 지식인들 사이의 네트워크로 구축된 이념적 방과제를 만들 필요를 절감했다. 이러한 방과제를 통해 중간 진영의 자유주의 지식인 및 전향 사회주의자와 비스탈린계의 온건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자유 진영으로 끌어오려고 했다. 세계문화자유회의는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CIA 요원이었던 마이크 조셀슨이 주도하여 1950년 6월에 베를린에서 창립되었으며 전체 사무국을 파리에 설치했다. 문화자유회의는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미국식 자유주의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전체주의'로 표상되는 공산주의와의 사상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³⁸⁾

37) 박갑동, 『북조선 악마의 조국』, 서울출판사, 1997, 49~62쪽.

38) 문화자유회의를 중심으로 CIA 주도의 문화적 냉전을 분석한 연구로는 프랜시스 스토너 손더스,

‘문화자유회의’는 이 기구를 초국가적인 지식인 네트워크로 발전시키려 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에 현지 지식인들로 구성된 지역위원회(local committee)들을 설립하여 이 지역위원회의 문화·학술활동을 지원했다. 문화자유회의는 파리 사무국을 중심으로 한 중앙 기구가 있었으며, 그 기관지가 유명한 『엔카운터(Encounter)』지이다. 여기에 각 나라마다 지역위원회가 있었는데, 이시하라 호키는 일본지부와 그 기관지 간행 등을 주도한 인물이다.³⁹⁾ 이시하라 호키는 1966년에 소련과 동유럽과의 교류 기구인 일본 외국 문화협회를 설립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일본과 소련 사이의 우호를 증진하려는 5개 단체가 주최한 일본-소련 원탁회의에서 중심 역할을 했으며 그 회의 결과를 잡지 『자유』에 게재하였다. 비스탈린·비공산당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을 고수했던 그의 정치적 지향은 문화자유회의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시하라 호키의 정치적 지향과 그가 소련 및 유럽과 맺고 있던 인적 네트워크를 매개로 임은의 원고가 전달되어 자유사에서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전후 일본은 냉전의 편제 안에서 미국의 진영 안에 있었지만, 공산당 및 사회(민주)주의적 사상과 활동들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일본에는 공산당과 사회당은 물론, 북한에 호의적이며 주체사상을 인정했던 인사들까지 다채로운 좌파의 분파들이 존재했다. 문화적 냉전의 세계적 네트워크였던 세계문화자유회의의 일본 지부로 활동하면서 잡지 『자유』 등을 발행했던 이시하라 호키의 입장에서는 임은의 원고는 ‘전체주의 체제’에 함몰된 공산주의 국가 북한의 현실을 폭로하는 데 유효한 텍스트였던 셈이다.

그렇지만, 비공산당계열의 사회민주주의자인 이시하라 호키와 일인 승배로 타락한 현실사회주의를 비판하지만 진정한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되돌아

『문화적 냉전』, 그린비, 2016을 참조할 것.

39) 문화자유회의와 『사상계』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최초로 환기한 연구로는 권보드레, 『『사상계』와 세계문화자유회의』, 『아세아연구』, 2011을 참조할 것. 문화자유회의의 한국지부인 춘추회와 한국의 기관지로 인정된 『사상계』의 이원적 체계에 대해서는 최진석, 『민주주의의 기로에 선 1950, 60년대 아시아 지식인-『사상계』의 문화자유회의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59호, 2020을 참조할 것. 한국의 경우 오종식·조지훈 등이 결성한 ‘춘추회’가 한국지부 역할을 했으며 『사상계』가 문화자유회의의 한국지부 기관지로 인정받았다.

가치는 공산주의자 입은은 합치되기 어려운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하라 호키가 입은의 이 저술을 출판한 까닭은 일본의 독자들에게 입은이 발신하는 다음과 같은 목소리를 들려주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김일성은 역사위조의 탁월한 명수이다. 그에게 속아 일본의 정계, 학계, 그리고 매스컴에서 활약하고 있는 저명한 인사의 일부까지 김일성의 주체를 창화하고 김일성의 장단에 맞춰 춤추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상이다. 프라이드도 지조도 그들에게는 없다.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자만을 즐달아 쓴 백봉(白峯)의 저서 <김일성 전>(원제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 구역질이 날 정도로 찬사와 추천의 말을 보내고 있다.

그들은 김일성의 40여명 <조선인민혁명군>이 일제를 격파하고 북한을 해방시켰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실제는 총 한 번 쏘지 않았다)에 의문을 느낄 정도의 판단력조차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1945년 8월 일본천황의 명령을 받아 시게미쓰(中兄) 대사가 서명한 무조건 항복문서가 김일성에게가 아니라 미·영·중·소의 수뇌에게 바쳐진 것이라는 것도 깨끗이 잊어버린 것 같다.

그들의 감각은 소위 북한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연대를 표명한다고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표면에 내걸고 있는 입장과는 관계없이 김일성 개인 숭배와 김일성의 반(反)마르크스적 ‘주체사상’의 강화와 ‘김일성주의’를 장려하고 보급하고 있는 선전집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감각은 마비하고만 것이다. 한국과 제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한국을 제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 한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에 가장 많은 해를 끼치고 있는 나라, 그것은 일본이며 일본의 정계, 학계 그리고 매스컴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위 ‘진보적’ 분자인 것이다.”⁴⁰⁾

입은은 김일성을 지지하고 반마르크스주의인 주체사상에 대해 찬양하고

40) 입은, 『북한김일성왕조비사』, 한국양서사, 1982, 280쪽.

있는 일본의 정계, 학계 및 매스미디어 등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⁴¹⁾ 이시하라 호키는 일본의 사상 지형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들에 대한 ‘임은’의 비판의 목소리를 일본 독자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일본의 현실 정치에서 반항을 불러 일으키려 했던 것이 아닐까.

4. 『김일성정전』 각 판본의 비교

1) 드러난 것과 숨겨진 것

『김일성정전』의 각 판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우선, 일본어판과 영어 판본은 모두 자유사에서 출판한 것으로 사용 언어의 차이는 있지만, 그 장절 및 문장 차원까지 동일한 내용이다.

다음으로 자유사의 일본어 판본과 한국의 번역본들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1982년 3월 24일부터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임은의 일본어 저작을 발췌 번역하여 소개했다. 이 때는 막 출범한 군사정권의 서슬 푸른 통제의 시기였다. 언론통폐합이 이루어지고 강력한 검열 통제를 받던 상황에서 북한과 김일성을 다루는 기사에 대해 이루어졌을 검열의 강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파원들은 스스로의 ‘마음의 검열’을 통해 문제가 되지 않고 흥미를 끌만한 내용을 선별 번역하여 원고를 송고하고, 각 신문사 데스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한 이중의 내적 검열을 거친 번역본들이 검열관들에게 보내졌을 것이다. 두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제목만 일별해도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다. 아래는 임은 저서를 소개한 당시 두 신문의 기사 제목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41) 임은, 위의 책, 315쪽. 일본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된 주체사상 관련 학술회의에 대해서 임은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주체사상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황장엽도 일본의 이 학술회의에 참여했다가 북한으로 귀국하는 중에 망명했다.

[표2] 『경향신문』의 번역 기사

회차	제목	게재연월	비고
1	풍각장이가 偶像으로-사창가드나들다 망신 안중근 김구도 추종자로 날조 외국대사 신임장제출 때 피검사	1982.3.24	
2	신격화는 유명작업 통해-5년 공백을 공훈조작기로 경력 과장에 장애 되는 자료 모두 없애 어용학자동원 최상용어로 이력분칠	1982.3.25	
3	사소한 원한도 피의 보복-수령추대주역까지 제물로 '심부름 거절했다' 수십년 부하도 제거	1982.3.26	
4	소 군정이 만든 '괴뢰수령'-스치코프추천, 스탈린지명	1982.3.30	
5	스탈린 허가받고 6.25 남침-허영심채우려 동족살육전 유지한 전략...주먹구구 작전	1982.3.31	
6	역사날조의 명수-선열들 광복투쟁까지 모두 '8-11세때 주체사상 창시했다' 조작 레닌·모택동보다 위대한 '초인'으로	1982.4.2	
7	무자비한 숙청으로 권좌지켜-'바른손 왼손' 이론 내세워 반대세력 '취갑기식' 제거	1982.4.5	

[표3] 『조선일보』의 번역 기사

회차	제목	게재연월	비고
1	김일성정전(1)이런 나라도 있다 : 평양 사창가누비던 蘇대위 출신 병관 율을까봐 외국신임대사도 꼭 혈액검사후 만나 김구·안중근까지 추종자로 날조	1982.3.24	
2	김일성정전(2)-이런 나라도 있다:'金一世' 전설 창작 선전 임금행세...아들은 '二世'	1982.3.25	
3	김일성정전(3)-실명과 허명 : 당시 활동한 이자동음 김일성은 5-6명 어이없는 공적 조작 죽은 빨치산 통곡할일	1982.3.26	
4	김일성정전(4)-유령의 과거 : 국내엔 있지도 않은 '망명정부·광복회' 날조 '본부는 백두산 꼭대기' 허깨비도 안면을 높음	1982.3.27	
5	김일성정전(5)-'공백 5년'의 시나리오①:보도기관 총동원 재소기간 경력 메우기 혈안 '가공'의 전투지휘 논리도 안맞는 환상소설 써	1932.3.28	
6	김일성정전(6)-'공백 5년'의 시나리오②:도피망가 소첩보원 노릇... '항일소조활동' 둔갑 광복 한달 뒤 돌아왔는데도 '국내 해방전쟁했다'	1982.3.30	
7	김일성정전(7)-'괴뢰탄생'의 내막:마지막까지 박헌영과 경쟁...스탈린이 선택 연설문도 소군 고문들이 작성, 김은 읽기만	1982.3.31	
8	김일성정전(8)-6.25남침①:스탈린 승낙받고 4월부터 병력 전방집결 "서울까지만 접수" 처음엔 확전 계산 안해	1982.4.1	

9	김일성정전(9)-6.25남침②:중공과 사전 협의않아...뒤늦게 '청병' 구걸 주는래는 반대...스탈린 권유로 출병 결정	1982.4.2	
10	김일성정전(10)-6.25남침③:'무지한 전략가' 金, 미 참전 등 예상못해 패주 '서울계점령 후 휴전' 고집에 중공·소서 반대	1982.4.3	
11	김일성정전(11)-숙청의 가면극:다른 파를 돌격대로 내세워 5단계 대살륙 '조선의 스탈린 만든 우리 잘못' 측근들 탄식	1982.4.4	
12	김일성정전(12)-숙명의 '붉은 암투' 연안파, '개인숭배' 공개도전...사전탐지돼 실패 소·중공 압력으로 복직시켰다 누명씩외 제거	1982.4.6	
13	김일성정전(13)-김왕조의 '先史小說': 김의 아버지 민족진영 둘다 공산당에 피살된 한의사 '국민회' 창건등 공산운동 선구자로 선전	1982.4.7	
14	김일성정전(14)-'주체'라는 유령사상:'수령이 역사 창조한다' 허황된 논리 지어내 봉건군주제 정치철학 이식...개인숭배 강요	1982.4.10	
15	김일성정전(15)-독제 이데올로기: 鐵血테러...의무간섭 배제 위해 '지주' 악용 말뿐인 자력갱생...중공·소 사이서 經援줄타기	1982.4.11	
16	김일성정전(16)-개인숭배의 종점:공산주의 이론에도 없는 전권 장악의 괴물 생전엔 신으로 군림...죽으면 규탄대상으로	1982.4.13	

『김일성정전』이 김일성 개인숭배를 넘어 세습의 왕조로 바뀐 북한 체제와 마르크스주의를 가장한 사이비 주체사상에 대한 격렬한 증오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청년 혁명가인 김일성의 항일연군 참여 및 유격대 활동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 않다. 보천보나 조국광복회의 과장과 윤색, 소련령으로의 도피를 감추고 조선인민혁명군으로 만주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다가 북한을 해방시켰다는 북한 정권의 공식 서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만, 만주에서의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 활동과 보천보 전투, 조국광복회 조직의 실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향신문』과 『조선일보』에서 발췌 번역한 내용은 당시 한국의 학술이나 대중적 서사에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던 김일성 가짜설을 흔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서술은 생략하고 있다. 대신에 소련 괴뢰론을 뒷받침할 만한 소련군과의 관련 부분, 피의 숙청의 대목,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 부분 등 김일성에 대한 한국 사회의 기존 인식과 어긋나지 않는 대목과 대중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한국전쟁과 관련한 비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반해 한국양서사 판본은 일본어 판본 전체를 번역했기 때문에 김일

성의 항일유격대의 활동상, 남한에서 금기시된 사회주의자 중심 항일연군에 대한 긍정적인 서술, 주체사상을 비판하지만 진정한 마르크스-레닌주의로 회귀하지는 이 책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필자의 주장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이 책이 처음 간행될 때 금서가 되지 않고 출판된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이다. 이미 신문지상에서 김일성에 대한 강렬한 비판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된 바 있기 때문에, 정작 책의 간행 때에는 검열관들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추론해 볼 수 있다.

검열을 피하려는 출판사 측의 노력도 확인된다. 1982년의 한국양서관은 지유사관의 거의 모두를 그대로 번역했지만, 마지막 종장 〈스탈린·모택동·김일성론-혁명과 건설의 태양인가 혼란과 공포의 상징인가〉 부분을 생략했다. 한국양서사관은 왜 지유사관의 마지막 장을 생략하고 번역했을까? 생략된 부분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 왜 개인숭배를 즐기며 독재자가 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그 반대의 진정한 사회주의자의 사례로 레닌(호치민, 카스트로)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중등지식을 소유한 정도였으며 이론적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지도자들이었음에도 스스로를 위대한 이론가로 자처하며 마르크스주의를 비속화했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개인숭배란 지성과 덕성을 갖추지 못한 허영심이 많은 지도자들이 장기간 집권하는 동안 아침분자들이 ‘충성’이란 불결한 자극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종의 수렁들의 전염병”⁴²⁾이다. 이들을 ‘개인숭배형 수렁’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대책점에 진정한 사회주의자로서 레닌의 사례를 제시한다. 임은은 레닌의 몸이 약한 것을 염려하여 빵을 추가 분배하고 허락 없이 레닌의 월급을 500루블에서 800루블로 인상한 내각사무국장 본치 부레위치에게 레닌이 각각 ‘주의환기’와 ‘경고처분’을 내린 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레닌이 자신의 살아 생전에 동상을 세우는 것을 엄금한 사례를 거론하며 레닌이나 호치민, 피델 카스트로 등 개인 숭배에 빠지지 않은 지도자들을 통해 스탈린과 마오쩌둥, 김일성을 비판하고 있다.

42) 임은, 『북조선 창설주역이 쓴 김일성정전』, 옥촌문화사, 1989, 387쪽.

임은 레닌을 사회주의 혁명가의 원형으로 삼아 김일성의 일인숭배를 비판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해 주체사상을 비사회주의의 사이비 이론으로 비판하는 방식을 취한다. 달리 말하면, 이 책은 북한 사회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김일성에게 숙청되어 사라진 식민지 시기 이래의 항일무장투쟁의 독립운동가들을 사회주의 혁명가로 고평하고 있다. 저술의 전체에 퍼져 있는 이러한 저자의 입장은 『경향신문』과 『조선일보』의 발췌 번역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전체를 번역한 단행본에서는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다. 글 중간에 녹아 있는 사회주의자로서의 관점은 열렬한 김일성 비판에 묻혀 드러나지 않길 바라면서, 출판사에서는 <종장>의 레닌에 대한 두드러진 내용만을 삭제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략이 통한 것이었는지 이 책은 검열을 통과하여 출판되었지만, 곧바로 금서 목록에 포함되게 되었다.

1989년에 다시 출판된 옥촌문화사판에서는 <종장> 부분을 포함하여 완역되었다. 옥촌문화사판은 1987년의 민주화운동을 거쳐 1988년의 ‘해금’ 조치가 이루어진 뒤에 출판된 것이다. 알다시피 1989년은 한국의 학생 운동권에서 자주파(NL)가 주류로 부상하며 평양학생축전에 임수경 등이 참여하는 등 통일운동이 고조되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격변 속에서 이 책은 다시 출판되었다. 옥촌문화사판의 발행인이 붙인 다음의 서문은 이전과 달라진 환경 속에서 이 책을 받아들이는 수용 주체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김일성은 누구인가에 대해 사실(史實)대로 밝혀져야하고 북한 동포들에게는 한국의 모든 사실(事實)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두동강난 금수강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 줄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을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세대의 양심이 아닌가. 민족속원대업인 통일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바르고 빠르게 알려 져야 되고, 특히 김일성에 대한 모든 것은 우선적으로 민족 앞에 공개되어야 한다.⁴³⁾

43) 김종권, 『『김일성정전』을 펴내면서』, 위의 책, 1~2쪽.

이 책을 재간행한 주체가 이 책의 출판을 ‘통일 운동’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의 발행인은 이전까지의 금단의 영역이었던 김일성에 관한 사항이 사실(史實)대로 밝혀지는 것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다. 당시는 오랜 동안 금기의 영역이었던 북한에 대한 지식을 구하려는 대중의 호기심과 요구가 분출하는 시기였다. 이 책이 북한에 관한 서적 출간 붐 속에서 출판되었다는 사실은 각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시에 이 시기에 이 책에 관여한 소련의 망명자 집단에 대해 한국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다시피, 1989년은 페레스트로이카로부터 비롯된 세계사적 격변이 있었던 해이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했는데, 그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소련과 중국 등지에 있던 동포들을 초청한 ‘세계한민족제전’이 개최되었다. 한국의 저널리즘은 이 대회를 전후하여 한국을 방문한 허웅배, 이상조, 정상진 등을 특별한 경험을 가진 재외한국인 동포로 호명하며 한국 사회가 포용해야 할 공동체의 일원으로 의미화했다. 즉, 그들은 더 이상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북한 정권에 가담한 것을 참회하는 기구한 운명의 재외동포로 받아들여졌다.⁴⁴⁾

2) ‘사진’의 시각 정치학

『김일성정전』의 각 판본 사이의 차이 중의 하나가 바로 ‘사진’의 유무이다. 일본어판과 영어판은 총 12개의 동일한 사진 도판을 책의 맨 앞쪽에 배치하고 있다. 각 사진의 이미지 밑에 달린 캡션을 통해 수록된 사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4) 이를테면, 『우리 자랑스런 한민족 먼 이역서도 긍지지켰다』, 『조선일보』 1989년 9월 28일자 정상진, 허웅배 인터뷰는 그 사례이다.

[표4]

연번	사진 설명(캡션 번역)	비고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기념사진(1948. 8)	북한 초대 내각 성원들의 단체사진
2	소련해방군환영평양시민대회 당일-왼쪽부터 강미하일소좌, 김일성, 메프레르 중좌	
3	조선노동당 제6회 대회 주석단-오진우(앞열좌측), 임춘추(둘째줄 우 측), 김정일(앞열우측)	1980년 10월 개최
4	청진에서(1947. 1) - 허정숙, 김일성, 허가의, 김책, 문애리(문일), 한병옥, 장순명	
5	대동강의 뱃놀이 평양(1948. 4)-왼쪽부터 김일성, 허가의, 김책	
6	청진에서(1947. 1)-왼쪽부터 김책, 허가의, 김일성	
7	허가의의 결혼식의 날-왼쪽부터 주영하, 김책, 김일성, 김두봉, 허가 의, 허가의부인, 김두봉부인, 김일성부인(김정숙), 주영하부인	
8	허가의의 결혼식의 날-왼쪽부터 김두봉, 허가의, 허가의부인, 김일성 부인(김정숙), 김일성, 허정숙	
9	앞줄 왼쪽 김광협, 최용건 뒷줄 왼쪽부터 한일무, 유성철, 김봉률, 이 권무	
10	유성철(왼쪽)과 최현	
11	김광서	김경천 장군
12	왼쪽부터 허가의, 김일, 장철	

이 책의 해설에서 야노 쇼지(矢野正二)는 이 사진들이 “모두 입은 씨 비장(秘藏)의 ‘증거사진’이며, 원고와 함께 조선문제에 관심을 가진 지유샤 사장인 이시하라 호키(石原萌記)씨 앞으로 보내져 온 것임을 부기해 둔다”⁴⁵⁾고 적고 있다. 책의 표지를 넘기자마자 1948년 8월의 북한 정권 수립 당시 김일성을 중심에 두고 박헌영과 홍명희, 김책, 최용건, 박일우, 최창익, 이승엽, 김원봉 등 북한 내각의 수뇌부 수 십여 명이 함께 한 사진이 자리한다.

45) 林隱, 『北朝鮮王朝成立秘史-金日成正傳-』, 自由社, 1982, 302쪽.



[그림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기념사진(1948. 8)

독자들은 이 사진에서 이름으로만 들어왔던 북한의 내각 수뇌부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목격하는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김일성이 평양 시민들에게 처음 소개되었던 환영대회 때 소련군 장교들과 찍은 사진, 허가의 결혼식에 부인을 대동하고 모인 북한 권력자들의 일상의 모습 등 독자들의 흥미를 끄는 강렬한 사진 열 두 장이 배치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저술에서 사진이 주는 효과는 당대적 인물과 사실의 시각적 재현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에서는 김일성이 북한의 권력자로 등장하는 데 절대적인 힘을 미친 소련의 영향을 지적하고, 북한 정권 수립 이후 김일성이 권력을 공고화하면서 함께 혁명을 수행한 동료들을 잔혹하게 숙청하고 일인숭배의 길로 접어든 데 대해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허가나 의문의 사고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김책의 석연치 않은 죽음의 정황을 묘사하면서 저자는 김일성이 이들을 살해했는지도 모른다고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의 내용과 겹쳐서 다시 책 서두에 있는 두 장의 관련 사진이 주는 시각적 발화에 주목해 보자. 김일성·김책·허가의가 평양 대동강변에서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1948. 4), 평온하고 우정이 느껴지는 포즈로



[그림3] 대동강의 뱃놀이 평양(1948. 4)
- 왼쪽부터 김일성, 허가의, 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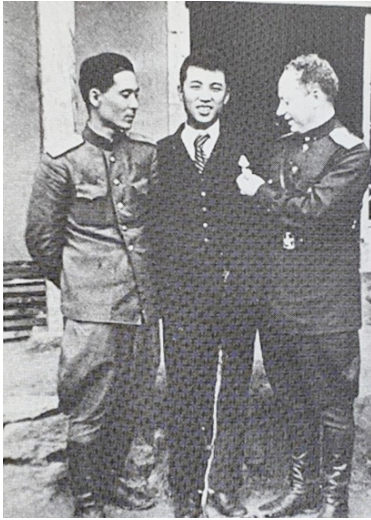


[그림4] 청진에서(1947. 1)
- 왼쪽부터 김책, 허가의, 김일성

청진에서 셋이 함께 찍은 사진(1947. 1)은 건국을 이루는 과정에서 함께한 이른바 ‘혁명 동지’를 살해한 김일성의 비정함을 극대화시킨다. 허가의 결혼식 사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일성과 김정숙 부부, 존경받는 한글학자였던 연안과의 수장 김두봉 부부, 소련과의 허가의 부부, 국내파인 주영하 부부 등이 결혼식과 그 피로연에서 찍은 즐거운 한 때의 사진은 몇 해 뒤 김일성을 제외한 사진 속 대부분의 사람들이 숙청되어 죽거나 축출되는 비극과 대비되며 여러 감회를 불러일으킨다.

한 장의 또 다른 사진에 주목해 보자.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마른 체형의 어색한 양복 차림의 젊은 김일성이 군복을 입은 소련 장교들 사이에서 있다. 어딘가 시골에서 대도시에 막 도착한 사람의 행색이다. 사진의 캡션에는 ‘소련해방군환영평양시민대회 당일, 왼쪽부터 강미하일 소좌·김일성·메프레르 중좌’라고 적혀 있다. 즉, 이 사진은 김일성이 평양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소개된 첫 번째 행사의 직전 혹은 직후에 찍힌 것이다. 이 행사는 김일성이 해방 정국에 공식적으로 데뷔한 북한 건국의 출발점이었다. 이 사진과 연동되는 본문 텍스트의 설명을 함께 읽어보자.

김일성이 1945년 10월 4일 평양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소련군환영 평양시민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을 때 강소좌는 자기의 군복을 김일성에게 입혀 주고 ‘훈장’(김일



[그림5] 소련해방군환영평양시민대회
당일-왼쪽부터 강미하일소좌, 김일성,
메프렐르 중좌

성이 하바로브스크에서 받은 것을 메고, 메프렐 중좌와 함께 달아 주었다. 김일성은 넥타이도 매어본 적이 없고, 메프렐 중좌가 대신 매어주었다. 이런 일이 있는 후, 김일성은 소련사령부의 조언과 지도 아래 모든 일을 해 나갔다.

우리는 이 시기를 ‘통역정치’의 시대라고 악의없이 부른다. 통역들은 소련군사령부의 전권대사였으며 김일성에 있어서는 죽히 믿을 만한 후견인이었다. 특히 유능한, 정치적 식견이 높고 성격이 온후한 강미하일, 이봉길, 박태섭과 같은 사람들은 그 업무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소련군환영 평양시민군중

대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최초의 연설도 소련군 25군사령부가 작성하여 전동혁이 번역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둔다.⁴⁶⁾

임은은 김일성의 복색부터 그 옷에 달린 훈장, 그리고 그가 한 연설까지 모든 것이 소련군의 기획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진에서 김일성은 양복을 입고 있음에도 위에 인용한 한국양서판에서는 이것을 강미하일 소좌에게서 빌린 군복이라고 쓰고 있다. 지유사판에서는 군복이 아니라 ‘服’, 즉 옷을 빌렸다고 적혀 있는데 한국양서판 번역자가 오역한 것이다. 강미하일은 소련군의 진주와 함께 북한에 들어온 제1진의 재소한인(고려인/카레이스키)을 인솔했던 인물이다. 초기 소련군정사령부 내에서 우리말을 하는 정규 소련군 장교는 강미하일 소좌가 유일했다고 한다. 그는 소련군정 민정사령부의 수석 통역관으로 사실상 대변인 임무를 수행했다. 강미하일 소좌는 소련군 사령부

46) 임은, 『북한김일성왕조비사』, 한국양서사, 1982, 150쪽.

와 북조선 정치·사회 지도자들을 연결시키는 다리와 같은 존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일성이 평양에 온 뒤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은 주로 강미하일 소좌를 통해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김일성에게 전달했다. 말하자면, 강미하일은 김일성에게는 믿을만한 후견인이었다. 그는 다른 소련 출신 고려인들과는 달리 북한에 남지 않고 북한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1948년 12월 북한 주둔 소련군이 철수할 때 함께 소련으로 돌아갔다.⁴⁷⁾

사진에서 김일성 오른쪽에 서 있는 그리고리 코노비치 메클레르(Grigori Konovich Mekler) 중좌는 소련군 제2극동전선 사령부 제7호 정치국장으로 군정기부 내의 민정전담 장교였다. 증언에 따르면, 평양공설운동장에서 최초로 행한 김일성의 연설문은 메클레르 중좌가 작성하고 전동혁이 번역한 뒤 한재덕이 문장을 다듬은 것이다.⁴⁸⁾ 임은은 항일투쟁의 이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미숙한 김일성이 북한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것은 전적으로 소련군의 후원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어리숙해 보이는 김일성을 가운데 두고 그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그 옷에 꽂힌 훈장을 바로잡아 주는 소련군 간부들의 사진은 이러한 텍스트의 설명을 시각적으로 표상한다.

요약하자면, 이 저술에서 임은은 항일무장투쟁의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미숙했던 김일성이 소련군의 기획과 지도 아래 북한 정권의 중심으로 부상했으며 허가의, 김책, 김두봉 등과 함께 국가를 건설했으나 결국 이들을 잔혹하게 숙청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배신하는 일인숭배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책의 서두에 배치된 사진들은 텍스트의 이러한 내용을 시각적으로도 확인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일본어판과 영어판에 있었던 이 사진들은 신문과 한국양서판에서는 사라졌다. 신문이라는 매체는 독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사진 자료를 특히 중시한다. 자유사판에 있는 이 사진들은 당연히 특파원들의 흥미를 끌었을 터인데, 신문사가 번역 소개하면서 단 한 장의 사진도 사용하지 않았던

47) 김국후,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한울 아카데미, 2013, 26~29쪽.

48) 김국후, 위의 책, 103쪽. 박길용 전 북한외무성 부상의 증언.

까닭은 무엇일까? 사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한국양서사 판본도 마찬가지였다. 그 이유를 번역 시간의 촉박함, 검열 등의 차원에서 추론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우선 아주 급박하게 번역이 이루어지면서 지유사 사장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을 구해서 보낼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다음으로 검열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다양한 이력을 지닌 북한 정권 수립 주역들의 사진은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 즉, 북한 정권에는 김일성 세력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다양한 항일 경력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박헌영, 홍명희, 김두봉, 김원봉, 백남운 등 남한의 지식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사진이 주는 인상이란 쉽게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다. 검열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시각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⁴⁹⁾ 어떤 이유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결국 1982년의 신문과 한국양서사판에서 사진은 사용되지 않았다. 1989년 옥촌문화사판에서는 일본어판의 사진이 그대로 실렸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지유사판의 사진들 앞에 1980년대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김일성의 노년의 사진을 추가하고, 그것을 표지의 이미지로도 사용했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최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제기되었다가 대법원에서 기각되는 한바탕의 소동이 있었다. “서적의 내용이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체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해 이와 다른 내용의 정신적 활동을 할 수

49) 원판이 아니라도 지유사판의 사진을 복사해서 실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 저작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이 세계저작권조약에 가입한 것은 1987년부터이고 그 전까지 신문, 방송, 출판 등에서 공공연하게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은 표절과 번역이 이루어지던 문화적 관행을 생각해 본다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두 신문사가 사진을 아예 실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없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⁵⁰⁾는 2심의 판결문은 그나마 냉전 시대와는 달라진 한국 사회의 변화를 보여준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진행되는 소송의 와중에 경찰은 김일성 회고록을 간행한 출판사 대표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고, 온라인 서점들은 이 책의 판매를 중단했다. 한국사회가 변화했다고 위안을 삼기에는 냉전 체제와 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데까지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처럼 분단과 냉전의 현실은 간단치 않다. 그리고 김일성이라는 역사적 인간에 대한 가치 평가는 분단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응축하고 있다.

새해가 되면 북한 수뇌부가 ‘금수산태양궁전’의 ‘영생홀’에 안치된 김일성 부자 시신을 참배했다는 뉴스가 들려온다. 이러한 뉴스의 장면은 북한에서 신으로 자리잡은 김일성의 위상을 보여준다. 한국사회에서 김일성은 한국 전쟁의 전범이자 북한 주민을 빈곤과 기아로 끌고 간 독재자로 비판받고 있다. ‘신’과 독재자(범죄자)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역사적 인간으로서의 김일성의 입체적 면모는 객관적으로 인식되기 어렵다.

임은은 자신의 책을 “우리나라 인민”과 “김일성 자신”이 읽어주기를 바랐지만, 2대 세습을 ‘왕조’라고 혹평한 이 책이 북한 독자에게 읽히기란 그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여전히 난망한 일이다. 그는 김일성에게 숙청된 국내파, 연안파, 소련파 사회주의자들을 “붉은 순교자들”로 불렀다. 알다시피 식민지와 민중의 해방을 위해 조선과 만주, 일본, 소련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사회주의자들이 분단된 남북한에서 제 명을 다 살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들의 행적과 목소리도 포함하고 있는 이 책이 겪은 드라마는 복잡한 20세기 이데올로기의 지형과 문화적 냉전의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이 책을 둘러싼 사연은 남북한 정부가 상호 적대적이었지만 적어도 한반도의 역사적 사회주의에 대한 기억과 그것을 증언하는 목소리를 금지시키는 데 있어서는 공조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 가지 더 부기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에서 금지되고 삭제된 이러한 목소

50) 『대법,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문화일보』 2022년 1월 20일자.

리가 담긴 것이 이 책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잘 알려진 님 웨일즈의 『아리랑』, 남로당과 연안파 그리고 소련파 등 북한 정권에 참여했다 망명한 인사들의 기억과 목소리가 담긴 많은 책들이 냉전 시대 남북한에서 임은의 저서와 유사한 드라마를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을 아우르며 문제화하는 연구를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권보드래, 『『사상계』와 세계문화자유회의』, 『아세아연구』, 2011.
- 김국후,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한울아카데미, 2013.
- 김연수, 『일곱 해의 마지막』, 문학동네, 2020.
- 김태우, 『냉전의 마녀들』, 창비, 2021.
- 맹동욱, 『30년전 반김일성 선택 후회 않는다』, 『조선일보』 1989년 12월 5일자.
- _____, 『모스크바의 민들레』, 예음, 1992.
- 문영대, 『예술가의 초상2-변월룡』, 안그래픽스, 2021. 4(2판).
- 박갑동, 『북조선 악마의 조국』, 서울출판사, 1997.
- 박 일, 『김일성은 나에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배웠다: 전 김일성대학부총장 박일 회고』, 『신동아』 385(91.10).
- 오영진, 『蘇軍政下の北韓: 하나의 證言』, 중앙문화사, 1952.
- 와다 하루끼,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이종석 옮김, 창작과비평사, 1992
- _____, 『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 남기정 옮김, 창비, 2014(6쇄).
- 유성철, 『나의 증언』, 『한국일보』 1990년 11월 1-4일자.
- _____, 『피바다의 비화』, 『고려일보』 1991년 5월 30일자.
- 유순호, 『김일성』 상·중·하, 서울셀렉션, 2020.
- 이명영, 『金日成烈傳: 傳説과 神話의 真相 糾明을 위한 研究』, 신문문화사, 1974.
- 이지수, 『1950년대 재소 유학생의 소련 망명 사건과 북한의 폐쇄체제 강화: 허웅배의 미출간 회고록과 러시아 문서보관소의 서한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8집 2호, 2020.
- 林 隱, 『北朝鮮王朝成立秘史: 金日成正傳』, 自由社, 1982.
- _____, 『(북한)김일성왕조비사: 김일성정전』, 한국양서, 1982.
- _____, 『북한 창설 주역이 쓴 김일성정전』, 옥촌문화사, 1989.
- 정상진, 『아무르만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북한과 소련의 문학 예술인들 회상기』, 지식산업사, 2005.
- 정종현, 『해금 전후 금서의 사회사』, 『구보학보』 20집, 2018.
- _____, 『특별한 형제들』, 휴머니스트, 2021.
- 정지돈, 『모든 것은 영원했다』, 문학과지성사, 2020.
- 조규익·김병학, 『카자흐스탄 고려인 극작가 한진의 삶과 문학』, 글누림, 2015.
- 주성혜, 『[대담] 카자흐 공화국의 한인 작곡가 정추』, 『낭만음악』 제5권 제3호(통권 19호) 1993. 6.
- 채세린 글·박지현 이야기, 『가려진 세계를 넘어』, 장상미 옮김, 슬로비, 2021.
- 최진석, 『민주주의의 기로에 선 1950, 60년대 아시아 지식인-『사상계』의 문화자유회의의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59호, 2020.
- 프랜시스 스토너 손더스, 『문화적 냉전』, 그린비, 2016.

Lim Un, *THE FOUNDING OF A DYNASTY IN NORTH KOREA - An Authentic Biography of Kim Il-song*, Jiyu-sha, 1982.

Hostile cooperation : The Drama of *The Founding of a Dynasty in North Korea*

– An Authentic Biography of Kim Il-Sung(1982) Forbidden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

Jeong, Jong-hyun*

This study traces the publishing process of a book that was banned in the two Koreas, and its dramatic fate. On April 1st 1982 Jiyuusha, a publishing company based in Tokyo, Japan, published *The Secret History of the Foundation of the North Korean Dynasty: Authentic Biography of Kim Il-Sung* in Japanese, criticizing Kim Il-Sung's personal worship. Jiyuusha also published an English version that was translated directly from the Japanese one. While confirming the record of Kim Il-Sung leading the anti-Japanese guerrilla forces in Manchuria, this book critically narrates how it was exaggerated and turned into a myth in North Korea. Overall, this book expresses a profound hatred for Kim Il-Sung's betrayal of communism and his personal worship. The book was translated and published in excerpts in Kyunghyang Shinmun between late March and early April of 1982 throughout 7 issues, and Chosun Ilbo throughout 16 issues. Soon after, on April 10th 1982 it was translated in its entirety by the publisher Hankukyangseosa with the title *North Korea's Kim Il-Sung Secret History: The True Story of Kim Il-Sung*. In 1989, it was published by Okchon Munhwasa.

*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Inha univesity.

The author, who used the pseudonym Lim Un (林隱), identified himself as a Korean revolutionary, but it was never revealed who he was. Later, Lim Un's real name was revealed to be Heo Woong-Bae (1928-1997), through the testimony of several of his peers. In 1952 he was selected to study abroad in the Scenario Department in the Soviet National Film School (now Russia VGIK). He was influenced by Krushev's so called "Secret Speech" in 1956, and became critical of North Korea's personal worship of Kim Il-Sung. After criticizing it publicly in a meeting for international students (residing in the Soviet Union), he defected to the Soviet Union in 1957. This book was based on the testimonies and experiences of former North Korean activists from the Yanan and Soviet Faction, and can thus be considered the 'collective work' of the Soviet refugee community, centered around North Korean student defectors.

Ishihara Hoki (1924-2017) and Jiyuusha played a major role in the movement and publication of the book. Given that Ishihara Hoki was in charge of the Japanese branch of the World Congress for Cultural Freedom and the official paper of the local committee, Freedom, it is possible to guess a route for the manuscript.

The version published by Hankukyungseosa translated the Japanese version in its entirety, thus including the anti-Japanese guerrilla activities and the positive argumentation on the socialist-centered anti-Japanese United Army. Although the book was published, it was quickly forbidden and the ban was not lifted until October 19th 1987. One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Japanese and Korean versions is the presence or absence of photographs. A total of 12 photographs were placed at the front of the book in the Japanese version. When one looks at the picture of Kim Il-sung, skinny, dressed in an awkward western suit, standing between two Soviet army officers dressed in military uniforms it becomes rather clear to what he was attempting to draw the reader's attention.

The photo reflects the author's description of a Kim Il-Sung controlled by the Soviet Army. These photographs, which were added to the Japanese and English versions of Jiyuusha, were included neither in the Korean excerpts, nor in the Hankukyungseosa versions. The Okchon Munhwasa edition was published with no deletion in the content. Soon, however, the tone of the historical socialists shifted amidst the political changes in the world. With the collapse of real socialism, Korea (and Korean journalism) considered them as Koreans who were part of the Russian diaspora community, and that Korean society should integrate. The drawback of this book is an example of the complexity of the 'democratization' of Korean society in the late 1980s and the subsequent globalization.

Key words: *The Secret History of the Foundation of the North Korean Dynasty: Authentic Biography of Kim Il-Sung*(北朝鮮王朝成立秘史:金日成正傳), Heo Woong-Bae(1928~1997), Ishihara Hoki(1924~2017), Jiyusha(自由社), cultural cold war, censorship, prohibited books